

‘민주의 심장’ 광주 ... 오늘, 대한민국의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 광주·전남 대선 경선 결과에 정치권 촉각

문재인이나 결선투표냐 ... 경선판세 사실상 판가름

6일 펼쳐질 민주통합당의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 민심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아 ‘원 샷 경선’으로 마무리 될 것인지, 아니면 결선투표가 불가피 할 것인지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순회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예비 후보자들은 물론 각 캠프 인사들과 전국의 언론이 광주에 총집결할 예정이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 대세론을 확고히 하고 경선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순회 경선에서 7연승을 기록한 문 후보의 현재 누적득표율은 45.95%로 2위인 손학규 후보와 20%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결선투표가 가질 수 있는 과반 득표율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문 후보 측에서는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필수 조건인 ‘호남 민심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5일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을 정치적 고향으로 생각했고 호남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며 “(호남 주민들의) 서운했던 점까지 제가 더 잘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누적득표율 2위(22.64%)로 문 후

보를 추격하는 손학규 후보 측은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결선투표를 결정지을 분수령이라고 보고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손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손 후보는 이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정례조찬회에서 “광주·전남 경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선투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결선투표가 단순히 1위와 2·3위 합계 간 대결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선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 후보와 2.3%포인트 차이로 3위

를 달리고 있는 김두관 후보 측은 광주·전남 경선에서 선전,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남 경선에서의 선전을 내세워 영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할 경우, 조직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모으는 전략이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운 저의 분선 경쟁력과 진정성이란 요소를 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력·공약

(※후보는 기호 순서)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나이	62	53	65	59
출생지	전북 진안	경남 남해	경기 시흥	경남 거제
학력	고려대 법학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과	경희대 법학과
경력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위원장 민주당대표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정무특보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민주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정무특보 청와대 민정수석 노무현재단이사장
슬로건	내일이 기다려진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다
주요 공약	사회교육 전면패시 하루스무어 주택의 임대 전환 5천개 중견기업 육성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재정분권 등 지역 균형발전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2020년까지 70% 이상 고용률 달성 기업지배구조 정상화 서울대-지방국립대 공동학위제	크로시칸 단속 신규고용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 관광 재개

정세균 후보는 유일한 호남 주자라는 점을 내세워 전북 경선에서처럼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 후보 측에서는 박준영 전

남지사의 측면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북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선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의 한 표 5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 마련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27곳에서 투표소 투표가 이뤄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손학규·김두관 2.6%P差 ... 2위 싸움 치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후반전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결선투표와 연동된 2위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 46.0%(6만1904표), 손학규 후보 22.6%(3만503표), 김두관 후보

20.4%(2만7417표), 정세균 후보 11.1%(1만4905표)다.

2위인 손 후보와 3위인 김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2.6%(3086표)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는 결선투표 여부는 물론 2위 싸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칠 전망이다.

손 후보와 김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문 후보의 과반 지지를 저지하고 1위를 차지,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와 함께 최소한 2위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

결선투표와 연동 오늘 경선서 결과

지역 경선에서도 선전, 2위 진입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3위나 4위에 머무른 후보는 사실상 경선 레이스에서 뒤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좋

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후보는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날 1위와 2위에 비해 상당한 차이로 3위나 4위를 기록한 후보들은 사실상 경선 레이스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도 광주에

비엔날레 개막식 대선후보들 각축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광주·전남 순회경선이 치러지는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호남지역을 방문한다.

박 후보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5일 “박 후보가 내일 대풍 ‘블라벤’과 ‘텐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신안 압해도와 진도 등의 전남지역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신안은 감태중 전 대통령령의 고향이어서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풍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또 오후 7시에는 광주로 이동해 3개월간의 전시일정에 돌입하는 ‘2012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다.

박 후보가 호남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 7월14일 이후 55일 만이다. 당시는 대권도전을 선언한 경선 후보 자격으로 호남을 찾은 것으로 대선후보 선출 이후에는 첫

방문이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분산인 광주·전남지역의 순회 경선이 열리는 날이어서 방문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 그것도 잔칫날 방문일정을 잡은 것은 민주당의 기를 꺾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있다는 본다”며 “광주·전남 경선의 효과를 반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과도한 억측”이라며 “박 후보가 대표 시절부터 광주비엔날레는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어서 개막식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 우연히 민주당 행사와 겹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엔날레 개막식에는 광주·전남 순회경선을 마친 민주당 문재인·손학규·김두관·정세균 경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후보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바일경선 불공정 논란 재점화

“5회 통화시도 규정 위반”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경선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제주·울산지역 모바일투표 과정에서 “5회 통화 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 3656건 등 4600여 표가 오류로 인해 무효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제주·울산 총 모바일 무효표의 25.8%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울산 경선에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의 시동을 건 경선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학규·김두관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모바일투표 로그파일 확인 결과 제주도 선거인단 중 2876명이 규

정대로 5번의 전화를 수신하지 못했다. 또 전화 안내가 나오는 도중 투표하고 전화를 끊어 무효표로 처리된 중간투표 사례는 599명, 리서치회사 기록에는 있으나 통신사에서 실종된 경우는 350여 명이다. 이로써 제주 모바일투표 무효표(1만3639표) 가운데 28%인 3800여 명의 투표권이 사라진 셈이다. 울산 경선에서도 모바일투표 무효표 가운데 19%인 777명이 전화를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선관위 측은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5회 통화시도를 했다”며 “이는 모바일의 한정으로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RounD Table

2012 광주비엔날레 | 라운드 테이블

2012년 9월 7일 - 11월 11일,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광주시내 일원

주최: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www.gwangjubienale.org
biennale@kwangjubienale.org

GWANGJU BIENNALE 2012 | RounD Table | 라운드 테이블